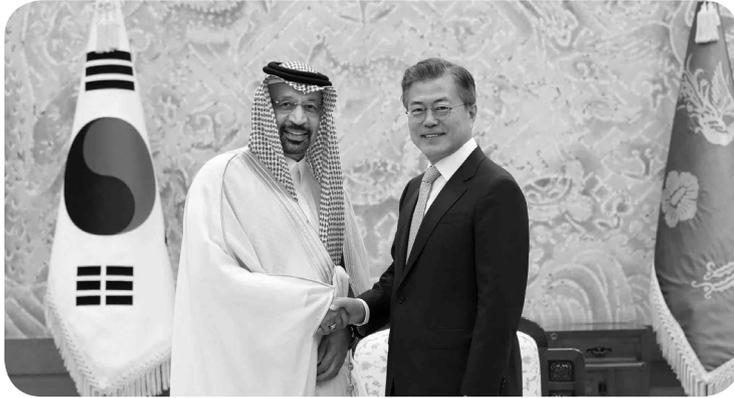


사우디 에너지 장관 “한국과 원자로 개발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4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알팔레 장관은 자동차와 원전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며 “사우디는 수소차·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한국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 알팔레 장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하고 싶다.”며 “실질적 논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의 대형 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은 40년에 걸쳐 풍부한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최고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증명됐다.”며 “한국은 단순 원전 수출에 그치지 않고 사우디와 함께 제3국으로 공동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의 동반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사우디의 장기 경제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산업,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알팔레 장관은 사우디 에너지부, 사우디 석유공사(아람코),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등 사우디 에너지·산업 및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5월 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현재 사우디는 20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예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등이 원전 수주를 경쟁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 운영 기간은 4개월간이다. 이번 재검토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

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 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선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재검토 항목(의제 선정) △의견 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명단〉

◇정부 추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단장)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울성 변호사

◇환경단체 추천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자력계 추천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중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원전지역 추천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원안위가 상황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0일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행 체계에서는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원안위가 초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우선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사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즉시(30분 이내) 구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사우디와 스마트 원자로 협력 강화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알팔레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 관계자로부터 SMART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자 선정이 다가온 가운데 한-사우디 간 원자력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알팔레(H.E. AlFalieh)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5월 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 SMART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김궁구 SMART개발사업단장의 브리핑을 받은 데 이어 원자로 설계 기술 교육을 위해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에서 파견한 사우디측 연구자의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원자력 안전연구 시설을 시찰했다.

사우디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알팔레 장관과 하재주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SMART 첫 건설과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 나아가 차세대 SMART 개발을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알팔레 장관은 자국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국립원자력연구소(NNL, National Nuclear Laboratory) 설립과 관련하여, NNL이 최단시간에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원자력연구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원자력연구원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회 IAEA 국제 인력양성 컨퍼런스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KHNP-IAEA HRD(인력양성) 컨퍼런스'가 5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제 원자력계의 화두인 '미래 원자력 인재 확보를 위한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60여개 나라에서 5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원자력 인력 양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히 최근 원전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등 원



'2018 KHNP-IAEA HRD(인력양성) 컨퍼런스'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인사

전 강국들과의 유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개회사에서 “원자력 기술 개발과 발전은 고급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생명”이라며, “한수원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양질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 분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원자력 안전 사고 대응 역량 강화, 원전 해체 및 사용후연료 부문의 인력 양성,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 세키무라 나오토 일본 도쿄대 부총장, 데이비드 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고위 행정관 등 국내외 원자력계 주요 인사 6명이 기조 연설을 했으며, 인재 확보, 교육 훈련 및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세계 원전시장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홍보전시회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원전산업 대표기관 및 미국 전력연구원(EPRI), 로사톰(Rosatom)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원전 기술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한국형 APR1400 신형원전 모형을 IAEA에 기증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기증된 모형은 IAEA 오스트리아 본부에 상시 전시되어 우리나라 원전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안전규제 선진 8개국 기관장 경주 방폐장 방문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제42차 회의에 참석한 8개국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장들이 5월 16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폐장 방문에는 INRA 의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NRC Kristine L.Svinicki 위원장,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Persson Mats 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단 관계자로부터 경주 방폐장 1단계 동굴처분시설 운영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추진 현황 등에 대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회의에 참석한 8개국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장들이 경주 방폐장을 방문했다.

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방폐장의 핵심 시설인 지상지원시설, 동굴처분시설 등을 견학했다.

INRA는 원자력 안전 분야 국제 공조를 위해 1997년 설립된 선진 원자력 규제기관장 모임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설립 후 유일하게 신규 가입했으며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아 성능검증서 위조, 해체안전, 방폐물관리 등 원자력 안전 이슈와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시민이 직접 참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과정을 둘러보고 있는 시민참관단

한국수력원자력은 5월 10일 고리원자력 스포츠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민 참관단 발대식을 열었다. 시민참관단 40명은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건설을 재개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언한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로 4월 중 공모를 거쳐 시민참관단 공모자 463명 가운데 무작위로 30명을, 울산시 울주군 지역단체 추천자 30명 가운데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시민참관단은 위촉장을 받은 뒤 신고

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신고리 건설 현장과 원자로 등 주요 기기의 제작 공정과 핵심 설비 내진 시험 등을 참관한다.

신고리 5·6호기는 4월 말 현재 종합 공정률 33%로 5호기가 2022년 3월, 6호기가 2023년 3월 각각 준공된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안전 확인”...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5일 원자로 수조 표면 방사선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됐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5월 2일까지 조사단을 파견해 원자로 안전성 영향 평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5월 10일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원안위는 발생 원인, 작업자 피폭 및 방사선 환경 영향, 운영자 운전 조치, 관련 설비 및 재발 방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중점 실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로 상부의 방사선 차폐를 위해 원자로 하부 수조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수조 고온층의 두께 감소로 인한 방사선 준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선량한도 미만이었으며, 주변 방사선 환경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원자로 기동 전 충분한 수조 고온층 데우기 및 두께측정 등 미흡한 운전 절차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운영자는 관련 절차서 개정과 하나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완료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오는 8월 수조 고온층 두께 측정 설비는 작업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제어실에서 두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할 예정이다.



피플

김범년 한전KPS 사장 취임



한전KPS(주)의 김범년 사장이 5월 25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전KPS가 창출해 낸 성과를 바탕으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회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의 깃발을 올릴 때”라고 말하고, “한전KPS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혼과 정이 있는 기업,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비기술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범년 사장은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한전 전력연구원 원자력발전연구소장, 한수원 엔지니어링본부장, 한수원 발전부사장(발전본부장 겸임), 광양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